

열린 마당

새로운 입을 조계종을 보며

개 혁

사설

안에서 밖으로 확산... 대화합의 길 열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므로써 개혁의 팀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8개월 남짓한 짧은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개혁불사를 주도한 스님들의 열의와 방략을 가리지 않은 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종단적인 단합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을 주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 단합된 거종단적인 지지가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 종단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일반인과 불교인이 갖

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불사가 종헌과 종법을 바꾸고 제도를 혁신하고 소임 맡은 사람을 바꾸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진정한 개혁불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종헌·종법을 새로 만들고 제도와 사람을 바꾼 것은 개혁의 내용을 담은 그릇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그 그릇에 채워진 내용에 따라 성패가 가름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개혁불사를 두고 일반인이 '불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말이 어불성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개혁불사의 성

패 여하에 한국불교의 내일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말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혁이란 죽은 겹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깨달음에 다름 아니다. 용성스님이 불교를 대각교(大覺敎)라고 하였듯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개인과 사회가 나날이 새롭게 깨달고 태어나기를 요구한다. 말하자면 개혁불사는 개인과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안심입명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은 어떤 제도나 법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힘

에 의해서 안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확산될 때 개혁의 섭리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묵은 겹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개혁에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종단에 해를 끼치고 화합을 깨뜨린다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버리는 극단에는 흐르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화합의 힘은 뜻이 같지 않은 이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해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데바닷따까지도 성불한다고 말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다. 아무쪼록 개혁불사가 대화합의 길을 열어 나아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시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우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중 서구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사회이며, 일본은 불교신자가 대다수인 사회이다. 우리사회는 불교와 기독교, 카톨릭, 단군교 등 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종교인의 숫자 또한 드물게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있으며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참신앙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불상을 공개까지 하게 된 것은 세상의 첫 소문 때문이었다.

우리가 다종교사회를 유지하려면 종교 사이의 갈등이나, 배타적 의식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푸른색을 좋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빨간색을 보다 좋아하면 필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깨달음의 길로 가는 선택에서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며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정과 추기경의 기도

최근 우리나라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흉악범이 날뛰는 것은 정일대통령들이 만들었다는 청와대의 불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소문은 불상 중의 일부가 없어졌던 남아있던 간에 근거없는 것이며, 비불교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분노하는 신이 아니며, 부처님상을 손상했다고 하여 사람을 해치고 보복하는 분이 아니다. 불상을 깨뜨리는 행위는 깨뜨리는 자의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멀어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부처님이 노위하여 보복하셨을리는 없는 것이다. 그 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불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말이다. 똑같은 이유로 청와대의 불상을 꼭 헐어야 한다는 일부 종교인의 주장 역시 이같은 헛소문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수준과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각 범
(서울대학교수·본지 논설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극보 제2호인 탐골공인내 원각사지 삼층석탑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국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우기 자연적 일실 뿐만 아니라 비록 보살 등 성상이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사실은 어찌구무 없일까지 하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은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온존되어 오늘에 내려오고 있다. 우상이라고 하여 배척받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차이를 극복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문화의 유산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졌어도, 그 신이 머물렀다는 곳은 그리스 민족의 문화적 유산이자 율리피 성화를 재화하는 세계적 성소 남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타종교를 배척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종파 신도들은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서도 불상을 훼손하기까지 하여 작은 외교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가 소중함 것처럼 세계 어느나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고하여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문화유산까지 흠을 내려는 것은 종교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종교를 믿는가의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 수준의 높고 낮음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 불교계에 보낸 축전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이땅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빕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분이 요즈음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신앙적 정진을 거듭하는 참 기독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의 신앙이 이와같이 돈독하기에 남의 종교를 모독함으로써 후세에 험담 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이생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입적하신 성철종정 예하 역시 어느 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어 베푸신 구원을 축하한 적이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곧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른 분들이 보이는 대승적 표현이며,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사회의 문제들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 많은 이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목전의 이익에 골몰하고 있으나 진정한 구원과 해탈에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종교가 존재하는 사회적 이유는 바로 이와같은 중생의 문제들에 사람의 관심을 돌려서 해결의 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풍부한 종교적 자원이 종파 이기주의에 묶이지 않은 채 중생구원에 그 큰 뜻을 둔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구원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있었던 청와대의 불상 논쟁 역시 우리나라의 종교가 참다운 종교의 역할을 하고

가르침 되새기며 중생의 소리에 응답해야

전문가의견

종교현상학에서는 종교의 역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된다고 본다. 종교현상학자 말처야 엘리야데가 「종교적인 것」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성」(聖, the sacred)과 「속」(穢, the profane)의 개념이었다. 인간의 일상적인 실존양태를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것은 그 반대인 비일상성인 「거룩한 것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은 이러한 성스러움의 실재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 속이 이분법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성」 그 자체가 아니라 다만 성스러움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의 기준은 성숙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聖賢)의 성스러움이 드러남(hierarchy)의 유무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리와 현현의 공존성과 단절성에 성과 속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거룩한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것에로의 타락과 분리의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다. 엘리야데는 세계종교의 역사를 이와같은 성과 속의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 조망해 볼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었다.

세계종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느 종교 집단이든 그 교단사의 전개과정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과의 역동적 긴장과 역설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종교집단은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와 성스러운 종교적인 요소가 혼재하여 있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종교집단의 두가지 속성에서 변증법적 발전이 있게 된다. 종교 창시자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바르게 전승되지 못하고 타락되고 변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래의 성스러움을 향한 개혁운동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개혁운동도 이러한 종교현상학적인 원리에서 그 운동의 방향과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거룩한 것은 세속화됨으로부터 항상 다시 복원하려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세기 전후에 일어났던 인도의 대승불교운동도 근본불교정신에로의 복원을 향한 개혁이었다. 오늘날의 한국 불교 현실은 불타교법의 성현(聖賢)이 희미해지고 그 복원력이 상실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성스러움의 근원인 불타 정신의 가르침을 드러내지 못하는 원인은 오늘날의 불교 공동체가 그 본래의 가르침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현상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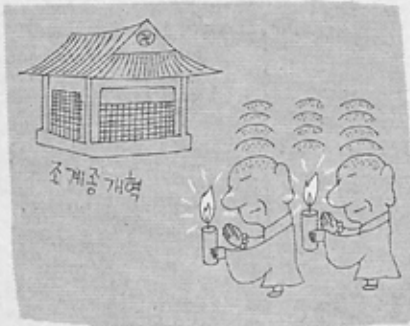
것을 해체시키는 혁명적인 것과 창시자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는 복원적인 것이 있다. 한국불교는 변질되고 타락된 속위의 해체를 통한 거룩함으로의 복원이 절실하다. 그 복원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역사와 중생의 소리에 대한 현재의 응답에서 성취되

어질 것이다. 불타교법의 성스러움은 이 세간의 시간과 공간과 진리 공동체를 통하여 항상 현재화될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야 한다.

김 용 표 (종교학 박사)

현대만평

박 구 원



하나의 佛心으로

제11대 중앙종회 의장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 의장단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 중앙종회는 진정한 개혁의 시발점에서 구성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실시된 의장단 선거의 공명성을 계속 유지하여 본종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믿습니다.

의 장 설 정 스님
수석부의장 일 면 스님
부 의 장 청 화 스님

한국불교 발전 연구원 임직원 일동